

샘물한글학교, 우리 교육은 다음 세대를 이어 줍니다

- 동경 샘물한글학교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전정선(Kasai Suzumi)

샘물한글학교 교장, 일반사단법인 재일조선족여성회 이사장

“우리말 우리글이 다음 세대를 이어 줍니다.” 이것은 지난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한 ‘2016 한글학교 교장 초청 연수’의 슬로건이다. 이는 민족 교육이 세대를 이어 준다는 뜻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말대로 우리말과 글로 일본에 있는 한민족의 우정과 애뜻한 마음은 하나로 뭉쳐지고 있다.

샘물한글학교는 일본 동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 동포(중국 국적 소지자, 중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재일 동포를 이 글에서는 ‘재일 조선족’ 또는 ‘조선족’이라고 지칭함. 이하 같음.) 2세 어린이들에게, 한민족의 민족 정체성을 심어 주는 우리말, 우리글, 우리 문화 교육을 펼치고 있다. 어려서부터 우리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한어(漢語, 중국 한족이 쓰는 언어), 영어, 음악 등을 포함한 민족 언어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은 어린이들이 민족의식과 정체성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장래 일본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샘물한글학교에 다니는 재일 동포 2세대들은 조부모는 한국 사람, 부모는 중국 출신 조선족, 자신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코리안’이라는 특수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일본어를 제1언어로 인지(認知)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가 민족 언어인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크게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우선 2007년도에 재일조선족여성회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국제화 시대에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본 생활을 보다 유익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 주체가 되어 일본 사회에서 겪는 취직, 사업, 가정 육아, 친목 등 일상생활의 고민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이어 민족 교육을 이어 나가기 위해 2008년 2월에 샘물한글학교(어린이 우리말 교실)를 개교했다.

2008년 초창기 적은 수의 여성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어린이 우리말 교실 운영과 여성회 활동을 함께 시작하였다. 어린이 우리말 교실에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인 전래 동요와 춤을 가르쳤고 동포 자녀의 어머니 및 동포 여성들을 대상으로는 법률 자문, 비자 상담, 취직 상담, 배우자 찾아 주기, 육아 교실, 꽃꽂이 체험 교실, 한국 요리 체험 교실, 김치 담그기 체험 교실, 에어로빅 교실, 전통 무용 교실, 한복 입기 교실, 기노노[和服] 입기 교실,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 체험 교실, 화장 교실, 여성 사업가 초청 강연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또한 신년 맞이, 송년의 밤 등과 같은 조선족 단체 활동을 조직하여 한복 입기, 우리말 하기, 우리 노래 부르기, 무대 경험 쌓기, 민속 문화 체험으로 우리 동포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 주었고 교실에서 배운 전래 동요와 전통 무용 문화를 가르쳤다. 또 계절에 따라 벚꽃 놀이, 야외 농활 체험, 조선족 운동 대회, 등산 활동, 바비큐 모임, 민속 떡 만들기 체험, 역사·문화 탐방 등을 조직하여 우리 동포 간의 유대감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샘물한글학교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인 ‘재외동포 한글학교 한국어캠프(2017년 봄 일본 나가노)’와 ‘재외동포 한글학교 초·중·고 학생 차세대 모국방문 연수(2017년 여름 한국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생 차세대 모국방문 연수(서울올림픽회관)’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우리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심화 학습뿐만 아니라 한글 창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 과학성 등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 되었다. 이처럼 샘물학교는 한민족의 정체성(identity)을 찾는 민족 교육 강화와 정체성 인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샘물한글학교 설립과 운영 초기의 어려움

샘물한글학교(어린이 우리말 교실)는 처음 8명의 어린이들로 시작하였다. 2008년 당시 학부모들은 한국어교육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몸이 어렵게 일본으로 유학을 왔으니 일본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았다. 일본어를 잘 배워 일본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더 절실히 여겼던 것이다. 학교에 나오는 학부모들 중 다수가 중국에서 교사직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어 교육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그 때문에 설립 초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학생 모집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 한국어교육의 기반이 약하여 수업 진행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당시에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전문 교재가 많이 부족했으며 구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일본 서점에서 엔에이치케이(NHK) 라디오 한국어 강좌 입문편을 사서 인쇄해서 사용했다. 또 중국 연길시 정부에서 근무하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교육국으로부터 초등학교 조선어문 교재를 받아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조금씩 한국어교육의 기틀을 잡아가니 점차 교재나 수업 내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졌다. 중국에서 발행한 교재보다는 한국에서 출판한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행된 교재를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생기면 꼭 시간을 내서 대형 서점이나 근처 서점에 들러 한국어 수업에 알맞은 교재와 교구를 자비로 구입하여 사용했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수 학습용으로는 불충분했으며 자비로 교재 구입비를 충당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한국어 교재로 고민하던 중 2014년도에 동경 와이엠시에이(YMCA)에서 열린 ‘원코리아 동경대회’에서 재일조선족단체의 활동 소개와 재일조선족여성회 활동 현황, 샘물한글학교의 어린이 우리말 교실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우연히 만난 재일 교포분의 조언을 받아 ‘지바 한국교육원’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한국어 교재 몇 부를 지원받아 사용하면서 한국어 교재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또 원코리아 동경대회에서 인연을 맺은 유지(有志)들에게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많은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했다.

재외동포재단과의 인연

2014년 12월 어느 날 송년 모임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 동경지회 지회장의 조언을 받았다. 그 조언은 바로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지원을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접촉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로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를 여러 번 찾아갔다.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장을 비롯한 교육지원부 지인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 아래 귀국 후 지바 한국교육원, 동경 한국교육원을 찾아다니면서 교육 지원 요청을 정식으로 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

관계자들은 고향의 친정집 형제처럼 재외동포 교육 지원과 관련한 절차 등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특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지원 소개, 절차, 방법, 방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지원을 받기 위한 수속 절차 및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알려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샘물한글학교 운영 현황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열악한 환경에서 노고가 많다는 응원과 위로의 말도 잊지 않았다.

샘물한글학교가 정식 한글학교로 인정을 받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재외 동포재단과의 인연을 이어 오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드디어 2015년 12월 16일에 주일대사관 동경한국교육원 남정순 원장으로부터 ‘샘물한글학교’라는 등록 증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마치 꿈만 같은 순간이었다. 재일 조선족으로 구성된 한글 학교가 처음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작은 소망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한글 학교 등록 증서 발급 이후에는 한국어 교재를 정식으로 지원받게 되어 교재와 관련한 짐을 덜 수 있었다. 학생들은 교재 구입의 부담 없이 모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에서는 기자재, 누리집 개설을 지원해 주었고, 한글 학교 등록이 되어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되니 더 많은 재일 동포 사업가와 재일 조선족 여성 사업가들이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보내 주었다.

2016년 2월 입학식에는 재외동포재단 주일대사관 강윤모 주재관과 동경 한국교육원 유호선 원장, 세계한인무역협회 동경지회장과 세계한인무역협회 지바지회장을 비롯한 재일 조선족 각 단체 회장, 관계자,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한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후의 첫 입학식은 약 10만여 명에 이르는 재일 조선족 사회에 우리 민족 교육이 온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경사스러운 날이었다. 샘물한글학교가 다음 세대를 이어 주는 우리말 계승 교육의 샘으로 발돋움하는 감동의 날

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주일 대사관 이찬범 총영사와 주재관이 샘물한글학교에 방문해 한글 교육에 봉사하는 교사들을 격려해 주었다.

요즘은 샘물한글학교 학예 발표회나 큰 행사인 재일 조선족 송년회에 주일 대사관 주재관을 비롯하여 재일 동포 사회에서 70년 역사를 지닌 재일본 민단본부 총무부장, 교육부장, 동경지부 교육부장이 참석한다. 특히 재일본 민단본부 총무장은 방문하실 때마다 잊지 않고 샘물한글학교 어린이들에게 격려를 해 주셨다. 이처럼 재외동포재단과의 인연으로 재탄생한 샘물한글학교는 지금까지도 재일 동포 사회에서 한민족의 얼을 담고 있는 우리글, 우리말, 우리 문화를 하나로 이어 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샘물한글학교의 교사들의 소질과 소양

샘물한글학교 교사들은 일본으로 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 교육에 애착을 갖고 중국에서 교사직에 종사했던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전문성과 수업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수법을 익히는 데에 힘쓰고 있다.

한글 학교 교사의 전문 지식 함양과 수준 향상을 위해 교장이 선두로 ‘서울대학교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했고, 재외동포재단 주최 ‘2016년 한글학교 교장 초청 연수’ 제1기생 교육을 받았다. 교감도 ‘연세대학교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했고, 교사 3명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한 ‘2017년 한글학교 교사 인증 과정’을 이수했다.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사 1명은 스테디 코리안 해외통신원 1기, 2기, 3기로 활약하고 있다. 올해에도

‘2018 한글학교교사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전형에 1명의 교사가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동경 한국교육원 남정순 원장을 초청하여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역사·문화로 배우는 1일 한글 체험교실’의 일환으로 한복 예절과 관련한 체험 수업을 진행하였고 관련 한국어를 배웠다. 한편 2016년에는 동경 한국교육원 유호선 원장을 초청하여 한국어교사 연수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동경한국학교 정원미 음악 교사의 지도 아래 한국 전래 동화와 동요를 배웠고 한국어와 민속놀이도 배웠다. 2017년에는 재외동포재단 지원 사업인 ‘재일동포 민족교육(한국어) 방안 세미나’ 1박 2일 과정에 많은 교사가 참가하여 한글교육 연수를 받았다.

2017년 6월~7월에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2017년도 한국어(예비)교원 국외 파견·실습 지원 프로그램’에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예비 교원들에게 현장 실습 경험을 제공하고 동포 교육 기관의 교원과 학생들에게 선진화된 한국어 교수법을 전파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이 샘물한글학교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교사들이 한국어교육의 선진화된 체계를 받아들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필자는 샘물한글학교 외에도 지바현 노다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본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실 현장도 제공하였다. 2018년 7월과 10월에도 진행될 예정인 이 프로그램에 샘물한글학교는 올해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샘물한글학교 교사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 기관과 교육 관련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다.

샘물한글학교의 민족 교육을 위한 발자취

샘물한글학교는 올해 개교 10주년을 맞게 되었다. 필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민족 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전문 연구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재일민단 창단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학술회에 참가하여 재일조선족여성회와 자원봉사로 운영해 가고 있는 샘물한글학교 현황을 소개했고 2016년 11월 8일에는 재외동포재단,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에서 주최한 ‘재일동포 민족교육 실태 심화조사 및 정책 방향 제시’ 결과 보고 회의에서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샘물한글학교 현황을 소개했다. 이런 과정에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민단 본부장을 비롯한 재일 동포 사회와 더불어 재외동포 사회 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호응을 받았다. 2016년 12월 동경 신오쿠보에서 한국 외국어대학교 두뇌한국21플러스(BK21+) 사업단과 일본조선족연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 학술 대회인 에스닉, 에스닉타운 연구와 한민족 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이 연구회에서 필자는 ‘한글학교와 한국문화 교육’이라는 주제로 샘물학교 설립 배경, 설립 과정, 활동 내용, 샘물학교의 의의, 학교 운영상의 과제를 발표했고, 연구 성과는 《재외한인연구》 제41호(2017년 2월)에 “재일조선족 한글학교의 의의와 가능성-관동지역 샘물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2017년 7월 말 중국 광주에서 열린 ‘도시 우리말 교육의 방법론과 실천’ 제3회 우리말 교사연수회에서 필자는 샘물한글학교 사례를 발표하여 중국 내 조선족 한국어 교육자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한국어교육의 발전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2018년 2월에는 전남 대세계한상문화연구단과 아시아 세미나하우스(BOA)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일 다문화사회와 마이너리티’ 학술회에서는 동경학예대학교 대학생들이 다수 참가한 가운데, 재일 중국 동포 어린이 한글 문화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고, 한국어교육의

미래와 교실 운영의 정착을 주제로 토론했다.

샘물한글학교가 동경 중심에 동지를 틀기까지

2008년 2월부터 시작된 샘물한글학교는 교실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매번 동경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을 전전공공하며 찾아다녀야 했다. 떠돌이 생활 10년 만에 동경한국학교가 5개 교실은 물론 비품 보관실까지 확보해 준 덕분에 겨우 보금자리를 찾았다. 현재의 동경한국학교에 동지를 틀기 전까지 교실을 찾아 떠돌아다녔던 상황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동경에서의 첫 시작은 닛포리(日暮里) 지역 시설이었다. 이후 와라비(蕨) 단지(団地) 시설, 오구(尾久) 후레아이히로바(ふれあいひろば), 아카바네(赤羽) 맨션 시설, 다카시마다이라(高島平) 단지(団地) 시설 등으로 옮겨 다녔다. 이어 2014년도에는 학원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장소도 몇 개월간 빌리기도 했고 2015년 초부터 2018년 2월 초까지 3년간 아라가와 구립 평생학습센터(荒川区立生涯学習センター)에서 유모실과 4개의 교실을 빌려 사용했다. 이렇게 매번 4~5개의 교실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교실 예약을 해야 하고, 지정된 날짜 지 요금을 지불하러 일부러 시설에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구청(荒川区庁)에서 활동이 있을 때에는 교실을 양보해야 하기도 했다. 따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교실 장소 예약과 요금 지불 지정일을 일일이 확인해 가며 교실 확보에 신경을 써야 했다. 번번이 교실 장소를 예약해야 했으며 요금 지불을 하는 날도 신경 써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장소가 바뀌어 학부모들에게 급하게 통보를 하거나, 소음에 대한 민원으로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날도 자주 있었다.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도구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매번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이동해야 하는 번

거로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복도나 화장실을 다닐 때 떠들거나 시끄럽게 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분들에게 민폐가 된다며 종종 주의를 줬고, 시설에서 쫓겨날까 봐 숨소리도 나지 않게 조용하도록 지도해야 했다. 그래서 장난기 많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소리 높여 동요를 부르기도 힘들었다. 빌린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심하여 3년간 큰 사고 없이 버티면서 장소를 해결에 몰두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18년도 새 학기에 재외동포재단 강운모 주재관을 비롯한 민단본부 오공태 단장과 민단본부 박상욱 총무국장, 동경지부 이선옥 교육부장, 동경한국학교 김득영 교장 등 유지(有志)들의 호응에 힘입어 동경한국학교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눈물 나게 어렵고 힘든 고비를 겪으며 우리말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샘물한글학교 개교 10년 만에 새봄이 찾아온 것이다.

2018년도 화창한 새봄을 맞이하던 날, 샘물한글학교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배움의 요람이 마련된 것이다. 드디어 2018년 2월 24일 새 학기 첫 수업부터 동경 도심 신주쿠의 동경한국학교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샘물한글학교는 이제 10년간의 불안과 떠돌이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즐겁게 소리 내어 웃고 마음껏 뛰놀며 소리 높여 동요도 부르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배워 가며 우리 노래와 우리 문화를 익혀 갈 수 있게 되었다.

“숨 쉴 수 있어서……말할 수도 있어서……살아 있어 행복해요.”, “오늘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문득 지난해 샘물한글학교 어린이들이 동경 올림픽청소년센터에서 열린 국제홍백가요무대에서 불러 노력상을 받은 노래의 가사가 떠오른다. 샘물한글학교 어린이들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 언어로 우리의 노래를 불러 2014년부터 일본 정부 관광청 장관상, 최우수상, 퍼포먼스상, 록킹상 등을 꾸준히 받고 있다. 우리말 우

리글이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 동포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샘물한글학교 현황

샘물한글학교의 현재 등록 학생은 198명으로, 4개 학급, 교사 15명이, 5개의 교실과 교재 비품 보관실을 사용한다. 재외동포재단 산하의 한글 학교로서, 한국 정부로부터 교육용 교재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을 받는 교재로는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한글기초 및 한글기초 학습장’, ‘국어 및 국어 활동’, ‘누리와 나라의 한국어 배우기’이다. 또한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다문화 유아를 위한 학습지, 그림책(동화책 포함), 꼬마 사전으로 구성된 ‘한국어, 한국문화 배우기’를 지원받아 수업에 사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샘물한글학교는 더 이상 한국어 교재를 찾아 헤매지 않고, 교재 부족으로 고민도 하지 않게 되었다. 또 고정된 교육 장소도 지원 받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며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가 10년간 자택에 보관해 두었던 비품도 올해 동경한국학교로 옮겼다. 샘물한글학교를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긴 것이다.

샘물한글학교 교실 풍경

샘물한글학교 교육은 대상에 따라 학생 수업과 학부모 수업으로 구성된다. 샘물한글학교의 교육 체계는 담임 교사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된다. 학생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을 중심에 두고 이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어 교실, 전통 무용 교실, 취미 교실, 육아 교실, 기타 교실도 계획

수업에 포함한다. 학생과 학부모 교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된 이유는 자녀는 물론 학부모도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 때문이다. 적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동경 지역뿐만 아니라 지바현, 사이타마현, 이바라키현, 가나가와현 등 가깝지 않은 지역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왕복 4시간 이상을 전철을 갈아타고 온다. 이 때문인지 학부모들은 샘물한글학교에 오는 이유가 공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외갓집에 놀러 와 우리말을 쓰면서 노는 기분을 샘물한글학교에서만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또 어떤 학부모는 배움과 동시에 좋은 인연을 쌓아 가는 배움터 역할을 샘물한글학교가 하고 있다고 한다. 아래는 2018년 2월 11일 샘물 학교 수료식·입학식에서 한 학부모가 한 말이다.

“저희 집은 아이 아빠가 한족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필수로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한국어는 거의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간혹 제가 부모님과 전화할 때만 우리 애들이 한국어를 듣는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이 일본에 오실 때에도 “엄마 애들하곤 중국어로 말해 줘.”라고 부탁을 하면서 어딘가 모를 죄책감을 느끼고 감미로운 우리말 노래를 혼자 감상하면서 쓸쓸함도 느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하게 회사 친구를 통해 샘물한글학교를 알게 되었고 ‘한번 가 보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연을 시작하였는데 벌써 그 인연이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선족운동대회 2번, 국제홍백가요전 3번, 송년회 2번으로 무대에 서고, 12일간의 한국어캠프 참가, 두만강국제청소년문화전 꼬마시인상, 한국어 변론대회 은상과 우수상, 어린이마당 그림전시회상도 수상했습니다. 대단하죠? (생략) 여기에서는 우리말과 중국어, 음악을 가르쳐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버스 여행, 어머니 강좌, 미술 강좌, 예절 강좌 등등 풍부한 과외 활동도 조직해 주고 우리 애들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온갖 기회를 찾아서 마련해 주는 그런 곳입니다. 전정선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나 하나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 받아도 우리 애들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아무래도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회사 다니랴, 자신의 가족을 돌보랴, 수업 준비하랴 저희들한테 보이지 않는

수고를 참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짜증 하나 안 내시고 항상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 꼬마들과 학부모님들을 맞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애들도 샘물학교 가는 날을 즐기고 있지만 제가 더 손꼽아 기다리고 애들을 데리고 외갓집 가는 기분으로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외할머니,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모, 외삼촌, 그렇게 퐁퐁 뭉친 일본의 샘물 외갓집! 시름 놓으시고 외갓집에 많이 다니세요.”

학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차세대 모국 방문으로 한국에 다녀온 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진 일기 책자를 만들어 왔다.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었다. 젊은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듯이 10만 명에 이르는 제일 조선족 사회에서 샘물한글학교는 점차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샘물학교는 중국 국내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올해 신입생들은 샘물학교를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거나,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우리 어린이들이 즐겨 다니는 우리 학교이기에 감사한다. 교실마다 한글을 읽는 정다운 어린이들의 우리말, 우리글 소리를 듣노라면 마냥 흐뭇하고 정겹기만 하다. 교실마다 “아아어어오오우유이…….” 하고 한글을 읽는 모습과 동요를 부르며 뛰노는 아이들의 얼굴마다 웃음꽃이 피는 모습, 자녀들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열심히 배워 가는 학부모의 모습도 아름답다. 지난 학부모 교실에서는 영어 수업, 세무사 초청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앞으로는 부모들을 위해 민족무용 교실과 동경한국교육원의 원장을 초청하여 교육 전문가의 자녀 교육 강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즐거운 우리말, 우리글, 우리 문화의 배움터인 샘물학교의 풍경은 평화롭고 행복한 주말 쉼터와 같다. 이렇듯 마음껏 아이들이 작은 꿈을 키워 가는 쉼터,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바로 샘물한글학교가 아닐까.

샘물한글학교 수업 내용

샘물학교 어린이 대상 수업은 4개 학급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 3세-5세 유아반. 교재는 《누리와 나라의 한국어 배우기》이고 수업 도구는 담임 교사들이 연초에 계획한 교안을 따른다. 주로 말하기, 듣기, 종이 접기 놀이, 그림에 색칠하기, 동요, 동화책 읽기, 동영상 보기 등 즐겁게 놀이로 익히고 체험으로 한국문화를 접하게 한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등 간단한 인사말부터 가르친다. 동요 놀이로 가사를 익히고, 종이 접기로 글자를 익히게 하며 가정에서도 비슷한 놀이를 반복하도록 한다. 교실에서 한국 동요를 배워서 무대에서 발표하게 한다. 한국어 외에 중국어와 영어도 가르친다. 숙제를 통해서 가정에서 복습을 시키고, 놀이를 하며 의식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2. 5세-7세 1반. 《한글학교 기초(상·하)》, 《한글학교 기초(학생용)》 교재를 사용하며 《한글이 야호》, 《쓰기 놀이터》와 《아름이와 다음이》의 《한국어 배우기 꼬마사전》을 참고하여 기본 자모음 카드, 낱말 카드, 그림 등으로 자모음을 가르친다. 교실에서 친구를 만나면 인사하기, 단정한 학습 자세를 통해서 즐겁게 공부한다. 모음 자음 이름 쓰기, 숙제도 열심히 한다. 받아쓰기도 고사리 손으로 칠판에 예쁘게 잘 쓴다. 자신의 이름, 아빠·엄마 이름 쓰기, 아이, 오이, 여우, 우유, 유리 등 수업에서 배운 자모로 낱말을 익혀 간다. 이외에도 동요, 동화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집에서 숙제로 부모와 함께 복습하도록 한다. 발음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다.

3. 8세-10세 소학 2반: 《초등학교 국어(가·나)》 및 《초등학교 국어활동》 교재와 《한글기초(상·하)》를 겸용하여 자음과 모음, 받침의 읽기, 쓰기, 듣기를 위주로 공부한다. 동요, 동화도 가르치고 그림 그리기 수업도 있다. 올해에는 역할극도 준비하고 있다.
4. 11세-13세 소학 3반: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1-1·1-2)》 교재를 사용한다. 읽기, 쓰기, 듣기, 낱말 익혀 글쓰기, 대화 연습 등을 공부한다. 제57회 한국어 능력 시험반 수업은 따로 운영되고 있다. 말하기, 낭독, 시 작품 쓰기, 일기 쓰기, 한국어 변론대회 글쓰기도 한다. 2년간 한국어 변론대회에 6명이 참가해서 은상, 동상, 우수상을 탔다. 2018년 4월 16일에 실시된 한국어 능력 시험에 3명의 학생이 처음으로 응시했고, '2018년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 모국연수'에는 중고생 3명이 신청했다. 작년에는 '2017년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에 2명이 참가했다.

이상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반에 3명의 교사가 각각 한국어, 중국어, 영어 교실에 투입되고, 각 담임 교사가 수업을 맡고 있다. 학생들은 연간 수료식 및 신학기 개교식, 벚꽃 놀이, 야외 학예 발표회, 여름 운동회,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지원을 위한 수업,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 중국 두만강 국제 청소년 시화전, 국제홍백가요전, 한국어 변론대회, 한국어 학습 발표 대회 등을 포함한 국내외 행사 활동에 참가한다.

샘물한글학교 교사진은 자원봉사자로 중국에서 교사 경력과 자격을 갖고 있는 선생님과 대학교 석·박사, 유지(有志) 교육자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은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토요일에 오후 12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된다. 한국어 검정 시험반 보충 수업, 한국어, 중국어 수업과 영어, 전래 동요,

그림 그리기 수업 및 공개 수업이 있다. 공개 수업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1번씩 진행된다. 매번 수업 후 문제점과 교재 내용, 수업의 효율성, 출석률 등에 대한 교사 회의를 하고 있으며 채팅을 통해서 수시로 학부모들과 당일의 수업 내용, 숙제, 연습과 관련한 연락을 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교실 수업 외에 다양한 교수법과 방법을 통하여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고 체험으로 즐기는 수업 방식을 고안하고 있다.

‘한복 체험’, ‘예의범절’, ‘전통 한국 차 문화’, ‘설맞이 떡 만들기’, ‘옷놀이’, ‘김장 김치 만들기’ 등의 체험 교실이 있다. 한국 동요, 율동, 민요 부르기, 시와 글짓기, 그림일기, 그림 그리기, 크리스마스 작품 만들기, 어머니의 날 편지 쓰기, 예능 발표회 활동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실에서 배운 한국어를 최대한 활용한다. 그 외 행사로 벚꽃 놀이, 운동 대회, 국제시화전, 국제홍백가요전, 한국어 변론대회, 학예 발표 대회, 모국 방문 캠프, 송년의 밤 예능 발표 무대 공연도 한다. 매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크고 작은 학술회, 글쓰기, 그림일기, 노래 자랑 행사에서 발표를 한다. 처음에 우리말을 전혀 모르던 일부 어린이들이 한국에서 진행된 모국 방문 ‘2017년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에 참가할 정도로 성장했고 7명의 학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처음으로 모국 방문 캠프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중 손유나 학생의 ‘2017년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일기’가 인기를 끌었다.

‘2016년도 제17회 동경지역 한국어 변론대회’에 처음으로 노태승 학생이 참가하여 우수상을 탔고 ‘2017년도 제18회 동경지역 한국어 변론대회’에 5명이 참가하여 모두 수상했다. 은상 1명, 동상 2명, 우수상 2명이 뽑혔는데 전원 샘물한글학교 학생들이다. 발표 제목은 은상을 받은 4살짜리 손리쿠의 ‘한국에 가 보고 싶습니다’, 허준우의 ‘나의 정체성’, 맹가영의 ‘자신의 뿌리’, 손유나의 ‘행복한 한국어’, 이수진의 ‘내 동생 유진이’ 등이다.

손유나, 손리쿠 오누이는 재외동포교육 진흥재단 ‘제1기 재외동포 어린

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우리글과 그림으로 해석하여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큰 결실이 되어 주었기'에 각각 참가상을 탔다. 두 학생의 그림은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의 부대 행사인 그림일기 전시회에 전시됐다. 그동안 '2017년 일본지역 한글학교 한국어 집중캠프'에 5명, '2017년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초등학생 모국 방문에 7명, '2017년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대학생 모국 방문'에 2명이 참가했다. '2018년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에 2명의 학생이 참가하는데 그중에는 샘물한글학교 초창기 수료생도 있다. 이렇듯 한 가족이 한국 정부의 초청에 선정이 되는 등 조금씩 노력의 결실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그만 결실 때문인지 동경한국교육원은 '2016년 동경지역 최우수 한글학교'로 샘물한글학교를 선정하였다.

우리 학교는 2008년도부터 '어린이 우리말 교실'을 무모히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10년 만인 2018년 2월 24일부터 '샘물한글학교'로 학교다운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다. 물론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표에 이르기까지 거리가 멀지만 착실히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필자는 인생을 즐겁게 바꾸는 명언 중에서 이 말을 단연 최고로 꼽는다. "아주 작은 첫 단계를 찾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 그 첫 번째 작은 걸음을 내딛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아라."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는 노력으로 학교를 운영해 간다면 차세대들이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계승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또 세대를 이어 주는 가교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이라 믿는다. 설립 초기에 필자는 샘물학교의 이름 그대로 풍풍 쏘는 샘물처럼 맑고 깨끗한 우리말, 우리글, 우리 문화를 이어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이러한 멈추지 않는 걸음은 반드시 우리 어린 세대에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오늘도 샘물한글학교의 발전을 위해 정진하기를 다짐한다. 민족 교육을 필요로 하는 우리 아이들이 존재하는 한 오늘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